



한국이 오는 6월12일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를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 벨스만델라 스타디움. 이곳에 한국대표팀이 14일 입성해 남아공 프로팀과 3차 평가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펄펄나는 박주영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한국축구 '민을맨'으로

프랑스 프로축구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박주영(25·AS모나코)이 새해 첫 출전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올리며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주영은 1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모나코 루이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몽펠리에와 2009-2010 정규리그(리그1)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21분 루크만 아루나의 패시브를 도왔다.

지난달 17일 스타드 렌과 홈 경기(1-0 승) 결승골, 21일 올랭피크 리옹과 홈 경기(1-1 무승부) 동점골, 24일 트랑과 원정경기(1-1 무승부) 동점골 등 내리 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박주영은 비록 연속골 행진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올 시즌 박주영의 공격포인트는 6골 3도움으로 늘었다.

모나코는 전반 11분 세바스티안 푸이그레니에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들어 아루나가 두 골을 몰아넣고 디에고 페레스까지 골 잔치에 가세해 몽펠리에를 4-0으로 완파했다. 9승3무7패(승점 30)가 된 모나코는 11위에서 7위로 강종 뛰어 올랐다.

박주영은 새해 들어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모나코는 지난 10일 2부리그 소속 투르FC와 프랑스컵 64강 홈 경기를 치렀지만, 박주영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뽐낸 박주영은 전반 10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아루나가 미드필드 정면에서 시도한 슈팅이 빗맞아 골 지역 정면에 있던 박주영에게 연결됐다.

오프사이드 트랩에서 벗어난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박주영은 왼발 타겟슛을 날렸지만 공은 골키퍼 제프리 주드랑에게 막혀 코너아웃됐다.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선제골이 터져 나왔다. 푸이그레니에가 네네의 코너킥을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후반 10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네네가

찬 프리킥을 몽펠리에 수비수가 걷어내자 아크 정면에 있던 아루나가 바로 왼발 중거리슛으로 골문을 열었다. 아루나의 프랑스 무대 데뷔골이었다.

아루나는 후반 21분 박주영의 도움으로 한 골을 더 넣었다. 박주영은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오자 눈소통 왼발슛을 날렸다. 하지만 골키퍼에게 막히자 다시 공을 옆으로 살짝 내쳤고, 아루나가 빈 골문 안으로 오른발로 차 넣었다. 팀 수비에 힘을 보탠 박주영은 후반 33분 골 지역 오른쪽에서 헤딩슛을 날렸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후반 41분에는 프랑스어 모델 스토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정확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도움을 추가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스타드 렌과 홈 경기(1-0 승) 결승골, 21일 올랭피크 리옹과 홈 경기(1-1 무승부) 동점골, 24일 트랑과 원정경기(1-1 무승부) 동점골 등 내리 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박주영은 비록 연속골 행진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올렸다. 올 시즌 박주영의 공격포인트는 6골 3도움으로 늘었다.

모나코는 전반 11분 세바스티안 푸이그레니에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들어 아루나가 두 골을 몰아넣고 디에고 페레스까지 골 잔치에 가세해 몽펠리에를 4-0으로 완파했다. 9승3무7패(승점 30)가 된 모나코는 11위에서 7위로 강종 뛰어 올랐다.

박주영은 새해 들어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모나코는 지난 10일 2부리그 소속 투르FC와 프랑스컵 64강 홈 경기를 치렀지만, 박주영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다. 최전방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뽐낸 박주영은 전반 10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쳤다.

아루나가 미드필드 정면에서 시도한 슈팅이 빗맞아 골 지역 정면에 있던 박주영에게 연결됐다.

오프사이드 트랩에서 벗어난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선 박주영은 왼발 타겟슛을 날렸지만 공은 골키퍼 제프리 주드랑에게 막혀 코너아웃됐다.

바로 이어진 코너킥에서 선제골이 터져 나왔다. 푸이그레니에가 네네의 코너킥을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넣었다. 후반 10분 미드필드 오른쪽에서 네네가



프랑스 프로축구 AS 모나코의 박주영이 14일(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골키퍼와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 허정무호 16강 길 바람이 새 변수다

그리스전 치를 포트엘리자베스 순간 초속 17m '강풍 주의보'

고지대 환경·자블라니 부적응 이어 또다른 골칫거리로 등장

'요하네스버그의 고지대 환경과 반발력이 큰 공인구 자블라니에 이어 이번에는 강한 바람까지...'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출전 사상 첫 16강 진출 목표에 '바람'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이 오는 6월12일(한국시간) 그리스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를 포트 엘리자베스의 벨스만델라 스타디움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 동쪽의 항구 도시인 포트엘리자베스는 인도양에서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윈디 시티(Windy city)'로 불린다.

이 때문에 인도양 바다에 인접한 벨스만델라 스타디움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해 신축됐고 관중 4만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경기장은 6월12일 오후 8시30분 한국-그리스 간 B조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치르는 그리스와 경기는 바람이 골칫거리가 될 전망이다.

대표팀이 13일 남아공 현지 프로팀과 평가전을 치를 벨스만델라 스타디움을 찾았다. 이곳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 때문에 주변 공사장에서 흩날리는

날렸고 걷는 사람마저 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벨스만델라 스타디움에서 현지 프로팀 베이유나이티드와 세 번째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훈련을 했는데 초속 17m가 넘는 바람은 선수들의 또 다른 화젯거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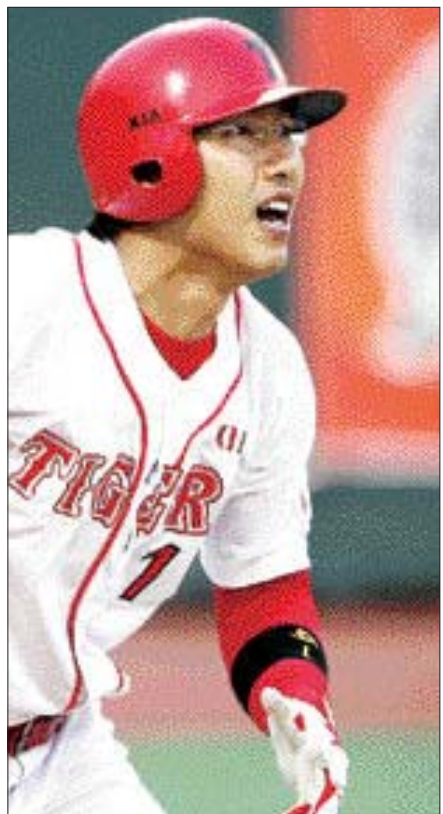
수비수 조영형(제주)은 "공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바람까지 분다면 경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월드컵 공인구인 자블라니는 반발력이 커 비거리가 길고 공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바람까지 분다면 경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요하네스버그의 사커 시티 스타디움은 해발 1천753m의 고지대이고 자블라니는 탄성이 커 선수들이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바람까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 우리나라와 그리스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선볼리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이 남반구여서 1월이 여름 날씨지만 월드컵이 열리는 6월에도 바람의 세기가 크게 줄지 않는 데다 겨울이어서 쌀쌀한 날씨까지 겹쳐 선수들이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월드컵 공인구인 자블라니는 반발력이 커 비거리가 길고 공의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바람까지 분다면 경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리는 요하네스버그의 사커 시티 스타디움은 해발 1천753m의 고지대이고 자블라니는 탄성이 커 선수들이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바람까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 우리나라와 그리스 중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선볼리 점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FA 장성호, 호랑이굴서 1년 더

연봉 3억원 삭감된 2억5천만원에 계약 마무리

KIA 타이거즈 장성호의 방향이 끝났다. FA(자유계약) 미아 위기에 놓였던 장성호가 14일 구단 사무실에서 협상을 갖고 계약기간 1년, 연봉 2억5천만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2억5천만원은 지난 7일 두 번째 협상에서 구단으로부터 제시받았던 금액으로 지난해 5억5천만원에서 3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트레이드 요청이라는 카드까지 빼들었던 장성호는 구단의 제시액을 받아들이며 FA마감시한(15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

계약을 체결한 장성호는 15일 가족과 휴식을 취한 뒤 16일부터 무등경기장에서 정

식으로 팀 훈련에 참가한다. 하지만 17일 일본 미야자키로 떠나는 전지훈련팀에는 합류하지 않는다.

구단측은 "장성호가 오른쪽 손목이 좋지 않고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아 광주에서 차분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잔류 선수들과 훈련을 하게 한 뒤 몸 상태를 봐서 연습경기 등에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군 선수단과 함께 몸만들기에 들어가는 장성호는 오는 20일부터 강진에서 진행되는 국내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호는 계약 후 "팬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계약을 마쳐 출가분하다. 훈련이 많이 늦어졌지만 개인적으로 산행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기술훈련이 부족한 상태인데 독하게 마음먹고 다시 훈련에 집중해 올 시즌을 치르는데 문제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호는 지난 시즌 부상과 포지션 경쟁 등으로 88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치며 타율 0.284, 7홈런 39득점 39타점을 기록했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지만 트레이드 불씨는 남아있다. 팀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FA 신청과 트레이드까지 요청했던 장성호의 입지가 여전히 불투명해 팀 전력의 다양한 구성을 위해 KIA에서 트레이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 박지성이 뛰는 '맨유' 가치 2조 1천억

2년연속 세계 최고 구단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프로 스포츠팀이라고 미국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가 14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포브스는 2008년 4월부터 1년간 세계 주요 스포츠 구단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맨유가 지난해보다 4% 정도 오른 18억 7천만달러(한화 2조1천억)로 평가해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미국프로풋볼(NFL)의 인기팀 델러스 카우보이스가 16억 5천만달러로 2위에 올랐고 역시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가 15억 5천만달러의 가치를 인정받

아 3위를 차지했다. 4위에는 15억달러로 평가된 미국프로야구의 명문 구단 뉴욕 양키스가 이름을 올렸다.

5위부터는 NFL의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13억 6천만달러),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13억 5천만달러),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12억달러), NFL의 뉴욕 자이언츠(11억 8천만달러), 뉴욕 제츠(11억 7천만달러), 휴스턴 텍사스(11억 5천만달러)가 10위까지 순서를 이뤘다.

포브스는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구단은 총 25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NFL에서만 19개 팀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간 2009.12.26~2010.02.28

100% 당일환급

(주)우동관광여행사

전화 : 062-383-9042

제주여행 이저 할인 받고 가지!!

www.jeju.com (24시간) 24시간 고객센터

제주도 100% 당일환급

제주도 100% 당일환급

제주도 100% 당일환급